

외국인 유학생 온다...대학들 코로나 방역 비상

전남대 416명·조선대 130명·호남대 330명 입국 러시 수송 대책 수립·격리 시설 설치 등 자구책 마련 분주

새학기를 앞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귀국과 신입생의 입국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3월 외국인 유학생 입국 예정 인원은 광주캠퍼스 274명, 여수캠퍼스 142명 등 총 416명이다. 광주캠퍼스 입국 예정 인원은 신입생 162명·재학생 112명이며, 여수캠퍼스는 신입생 66명·재학생 76명이다.

전남대 광주캠퍼스로 등교하는 유학생들은 5·18 민주화교육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서 양성 판정대는 곧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음성 판정대는 격리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에 들어간다. 여수로 향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여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격리장소로 이동한다.

전남대는 최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존 방역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대는 광주캠퍼스 생활관 158개실, 여수캠퍼스 생활관 66개실을 격리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대학교도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조선대에는 새학기 130여 명의 유학생이 들어올 예정이다. 조선대는 광주시 방역당국과 연계, 송정역 등지에서 1차 검사를 진행한다. 기숙사 내 격리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격리에 따른 음식 꾸러미, 식대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신입생·편입생과 어학연수생·재학생 등 330여 명의 유학생이 올 것으로 보이는 호남대학교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호남대는 대형버스를 이용해

송하겠다는 취지다.

유학생들이 광주에 도착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뒤, 대학 내 별도 마련된 안정화 기숙사 시설로 입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유학생들은 2주간 격리 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일반 기숙사로 이동한다.

이 밖에도 동신대와 광주대, 순천대, 목포대 등도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을 격리수용할 시설 확보와 방역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광주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학 내 안전을 지킬 방침이다"며 "차질 없는 준비로 안전한 새학기를 맞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유학생들을 논스톱으로 수송하는 방안을 세웠다. 유학생들의 입국 예정일과 인원 등을 고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학생들이 이



짧은 만남 뒤로 하고 설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광주 송정역, 명절 기간 동안 고향에 머물렀던 귀성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에 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교과서 인정도서 승인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심사본을 최종 합격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는 2009년 5·18민주화운동을 전면적으로 다룬 첫 인정교과서가 탄생한 이후 12년 만에 재탄생한 것으로, 변화한 사회상과 확장된 주제가 적극 반영됐다.

교육감 인정도서 5·18민주화운동 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상무고 2학년 과정의 신설 교과인 5·18민주화운동 수업에 사용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 개설을 통해 공식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교과서는 5·18의 발생 배경·전개 과정과 같은 역사적 사실은 물론 주먹밥이나 영화 택시운전사와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 역사 왜곡 대응, 사회적 연대와 실천 방안에 이르는 깊이 있는 주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5·18을 다루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 제보 받습니다

광주시, 진상규명 제보 접수...목격담·군 당사자 고백·왜곡 사례 등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진실 파악을 위해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 내용은 1980년 5월18일 전후 당시 군 관련 당사자의 고백과 증언, 목격담, 피해사례,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제보,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등 5·18과 관련된 모든 행위다.

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 및 편향 사례에 대한 제보도 함께 받는다.

광주시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철저한 검증과 사건조사를 거쳐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억울한 희생자와 피해자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5·18왜곡·편향 댓글과 가짜뉴스는 접속 차단 및 채널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고, 명예훼손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5·18법률지원관을 주축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왜곡·편향 활동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진상규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암매장 신고 50건, 행방자신



고 13건, 총기 및 헬기사격 관련 40건, 과잉진압 8건, 성폭력 6건 등 246건의 제보가 접수돼 진상조사위원회로 제보 내용을 이관했다. 진상규명 신고·접수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신고제보'란과 광주시 5·18선양과에 하면 된다.

김종원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밝혀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털어주고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설 귀성객 절반 '뚝'

66만2639명 광주 다녀가 추석 연휴보다 77만명 줄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번 설 연휴 기간 광주를 오간 귀성객이 지난해 추석에 견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설 광주시역은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연휴 기간 광주송정역·광천터미널·광주공항과 승용차를 이용해 66만 2639명이 광주를 방문하고, 53만8457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귀성객이 143만 5300여명, 귀경객 131만 41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 설 하루 평균 귀성객은 지난해 명절(추석)에 견줘 45.4%, 귀경객은 48.8% 감소했다. 이로 인해 귀향이나 귀성 시간은 평일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연휴 기간 화재는 6건이었으며 교통사고 25건, 구조·구급 600건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행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화재 등 대형 사고나 사건 없이 평온한 명절을 보냈다"며 "연휴 중 가족, 지인과의 접촉으로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립유치원비 추가 지원

전남교육청, 1인당 총 38만원

전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매월 1인당 총 38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당 매월 5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관련 예산 47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지원 규모에 더해 교육과정비 26만원과 방과후교정비 7만원 등 33만원의 유아학비(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도 교육청 자체 지원 5만원을 포함해 1인당 매월 총 3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유치원 급식비 지원 대상도 만 5세에서 만 4·5세 유아로 확대, 무상급식 실현도 눈앞에 두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유아 급식 질 제고 등 유아 교육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중혁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위상이 강화되고, 신뢰가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21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전남 지역 사립유치원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전년 대비 300여명의 유아 증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40주년

"나에게 힘이 되는 대광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아파트 분양자금

대출한도 최고 70%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최고 80%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